

위장약의 대부분은 해롭다

는 균도 함께 죽이는 것이 다,

어떤 병균이 장카달을 일으켰을때 장속에 살균제를 넣어 이들 악성균을 죽이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장카달을 일으키는균의 작용은 그일부에 지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살균제의 작용으로 다른 부작용이 안 생길수가 없는 것이다. 키노호름이 비타민 생산균을 죽인다고 하면 인체는 비타민부족현상을 일으킬 것이다. 혈액증, 입속염증, 항문주위염 외에 뇌신경등을 손상시켜 발광상태로 죽는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을 가져온다.

이러한 키노호름을 위장약에 처방하여 오랫동안 증에게 팔아왔다고 하면 얼마나 놀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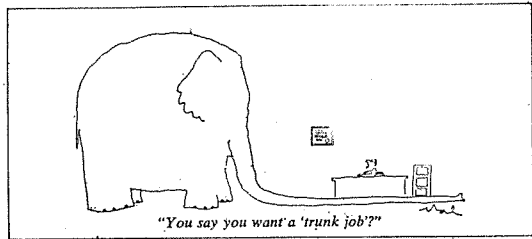
의학이 아무리 진보했다고 해도 그것은 진단학(診斷學)분야에서고 치료의학은 지금도 경험의 축적일 뿐이다. 전염병에 대한 항생물질의 극적인 효과를제 의하고는 의사가 방해를하지 않는다면 병자는 혼자서 치료할수 있다고 한다.

현대는 봉급생활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다. 사원들이 맹렬사원으로 집단을 이루지 않으면 그기업은 살아 남을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스트레스시대에 봉급생활자들이 여러가지 괴로움은 호소하게 되는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러한 불안을 틈타 여러가지 대중보건의약의 상업설전이 태대비나 신문 라디오를 통해 범람하고 있다.

그러므로 키노호름이 전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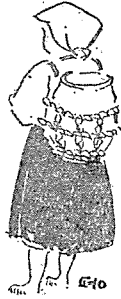
살균제인 키노호름은 아메바성이질의 치료약으로 등장하였다. 아메바성이질은 보통 이질보다 증상이 가볍지만 잘 낫지않아 의사를 괴롭혔는데 키노호름이 이아메바성 이질의원충을 죽이는 것이 알려져 치료약으로 크게 각광을받았다.

그런데 키노호름은 악성병원균을 죽일뿐만 아니라 싱질상 인체에 없어서는안 되는 좋은 균까지 무차별하게 죽이는데서 문제가생겼다. 소화작용을 도우고 균있는 비타민 B를 만드



운반작업을 하겠다고 했나?

■ 토막상식



발이 아플때

다리가 아프다고 해도 여러가지 병을 생각할 수 있다. 스키를 타다가 넘어졌 다든지 층계에서 떨어진 경우처럼 원인이 명백한 것은 별도로 하고 이유도 없이 다리가 아프면 폐쇄성동맥경화증이 많기 때문에 주의할 해야 한다.

발이 매우 아프고 특히 발가락이 보라색(紫色)을 띠고 걸을때 아프면 쉬고 쉬었다가 또 걷는 증상이 있으면 폐쇄성동맥경화증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병은 걸으면 아프고 또 낮기 때문에 걸으

면 다시 아프다는 것을 주의해 둘 필요가 있다. 이유는 동맥경화때문인데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하여 혈관경련수축 작용이 일어나고 혈류(血流)가 나빠져 혈관 끝부분의 영양장애가 생겨 생기는 것이다. 병이 진행하면 밤이되어도 잠을 자지 못하고 결국에는 잘라 내야 하는 괴로움을 당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혈관의과의 발달로 혈행재건수술(血行再建手術)을 하여 고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무릎접시 바로아래의 경골(脛骨)이 부어 걸거나 운동을 하거나 누르면 아픈 오스크트슈타트병이라는 것이 있다. 이 병은 12~66세가량의 운동을 좋아 하는 남자에게 많다. 이때의 연령에서는 무릎부분이 아직 여물지 않으므로 무릎을 심하게 굽히는 운동을 하면 이부분의 연골(軟骨)이 늘어져 아프게 되는 것이다.

특히 걱정할 병은 아니지만 반창고를 발라 운동을 제한하거나 참지 않게 하여 반년정도 조심하면 자연히 낫게 된다. 심하게 아프면 병원에가서 부신피질 홀몬주사를 맞던가 골수를 천자(穿刺)하던 아프지 않게 된다.

수용금지된 것을 계기로 좋은약과 독약은 중이한 차이라는 것을 깨달고 폐스름을 통한 상상업선전만으로 보건약을 선택하여 일 년내내 중독위험에 빠져서는 안되리라 생각한다.

인간은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잡힌 식사를 하고 있

는 한 약은 필요없는 것이다. 물론 일생을 살아가는데 임신, 출산, 질병회복, 노령, 수험공부, 과로, 불면등 여러가지 사건이 잇달아 일어난다. 이럴 경우에 임시변통으로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다.

단지 매스콤선전만으 약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약의 선택은 약국에서 약제사와 상담을 해서 결정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여약을 바꾸어 가면서 먹어야 할것이다.